

02

[글로벌경제위기의 시대, 자율적 지역경제의 가능성을 묻다]

“분공장경제로부터 자율적 지역산업진흥으로 - 이와테 모델의 재고”

“分工場経済から自律的地域産業振興へ -
岩手モデルを再考する”



오다 히로노부(小田宏信)

세이케이대학 교수
成蹊大学教授

분공장경제로부터 자율적 지역산업진흥으로: 이와테 모델의 제고

오다 히로노부(小田宏信)

(세이케이대학 교수, 일본지역경제학회 국제이사)

1. 포디즘과 기업내 지역간 분업, 분공장 경제

188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도약(Take-off)을 달성한 일본의 공업은, 제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대전기간 중 중공업화, 장치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제 2차 세계대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기초소재산업, 가공조립산업의 폭발적인 설비투자를 실시하여 눈부신 공업생산의 성장을 이뤘다. 197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명실공히 공업대국, 기술입국이라는 세계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의 제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각국의 생산기지의 이관이 현저히 진행되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닫힌 시스템'인 일본공업의 분업시스템은 단번에 국제적으로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분공장경제'의 문제가 표면화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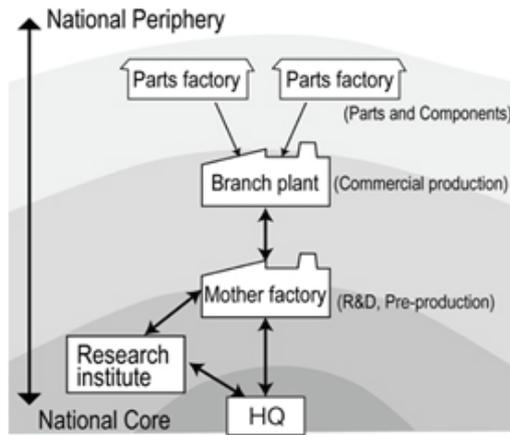
먼저, '분공장경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분공장경제'라는 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경제체제, 즉 포디즘이 지리적으로 발현된 현상이었다. 1903년에 포드 모터 컴퍼니를 창립한 헨리 포드는 1908년,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부품들을 조립해 가는 최초의 차종, 'T형 모델'을 발표하였다. T형 포드는 1927년에 제조를 중단하기까지 약 20년에 걸쳐 1500만대가 제조된 세계 산업사에 이름을 남기는 양산자동차이다. 포드는 이 때까지 실시된 미국의 공업생산방식을 특징짓는 호환성생산을 기초로 한 테일러주의(Taylorism)에 컨베이어벨트 작업방식을 부가한 포드형 생산방식을 확립하였다. 포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제품가격의 저렴화와 노동자에 대한 임금상승을 실현하여 대량생산이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20세기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제품가격이 저하되고 다른 쪽에서는 임금이 상승되면 수요는 확대되고 추가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황금 사이클은, 그에 적합한 공업입지 및 그외 지리적 편성을 동반하게 되었다. 헨리 포드는 제품사양의 규격을 철저하게 표준화하면 농촌의 미숙련노동력으로도 부품제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고안하여, 빌리지 플랜트(Village Plant)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품공장을 디트로이트 교외에 분산시켰다. 포드는 임금지향 이라고 표현하나, 공장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농촌의 소득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농촌이 부유해지면 제품시장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였다.

포드가 구상했던 지리적인 생산방식은 이화학공업(리켄) 및 마쯔시타전기(파나소닉)을 필두로 하여 많은 일본 기업이 수용하게 되었다. [그림 1]은 기업내 지역간 분업을 모형화한 것으로 국토 중심부에서 관리를 통솔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어내고 주변 지역에서 부품제조를 실시하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전기, 전자공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가공조립형 공업의 입지모델이 되었다.

[그림 1] 기업내 지역간 분업 모식도



출처: 필자작성

이런 의미로 보면 한 국가 내 분공장경제의 파탄은 20세기형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대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명제이기는 하나, 분공장경제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원대한 테마에 착수한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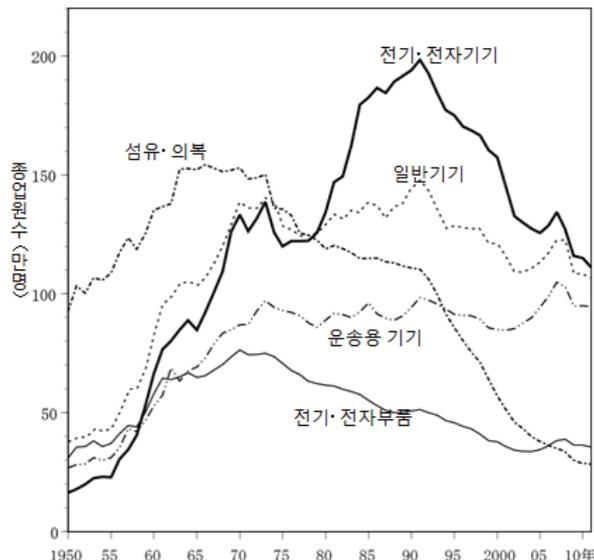
2. 일본 제조업의 동향과 지역구성의 변화

(1) 일본 제조업의 동향

주요업종의 종사자수의 추이(그림 2)를 통해 최근 반세기의 일본공업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자.

전쟁 전기부터 일본공업의 주역이었던 섬유공업은 1960년대 초반에는 성장이 한계점에 이르렀으나 그에 대신해 전기, 전자기기, 일반기기, 운송용 기기와 같은 가공조립계열의 업종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고도경제성장기의 중반인 1965년 불황 때에는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석유파동이 닥쳐온 1973년까지는 가공조립계열의 세 업종을 통해 고용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일본 주요업종의 종업원수 추이



출처: 竹内·小田 編 (2014)

제 1의 전환점은 1973년이고, 이를 계기로, 섬유계열 업종, 금속계열 업종에서 명시적인 고용감소가 보였고, 또한 일반기기, 운송용기기가 정체상태로 접어들고 있던 중,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를 통하여 전기, 전자기기공업이 다른 업종을 압도하는 고용확대가 계속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배경으로 한 신제품개발이 그 배경이었다.

제 2의 전환점은 1991년이다. 버블붕괴와 그에 따른 제 2차 엔고현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국내로만 향했던 설비투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의복산업에서는 수탁생산을 포함한 해외생산을 확대하여 전기, 전자기기공업도 왕성한 직접투자에 따라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관하게 되었다. 이 결과 지금까지의 업종 중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미증유의 고용감소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 운송용기기 및 일반기기에서도 해외진출을 추진하나, 내수형 생산이 국내에 여전치 유지되어 있었던 것과 중간재 및 자본재 생산에서 국내 기술집약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장기적 추세로는 고용이 정체되어있는 상태였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일본공업의 공동화가 확연히 진행되고 있다. 국세조사 베이스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피크에 달하는 시점이 1990년 시점인데 이 때 1464만 명에 달하였다. 일본의 총 종사자수에 대한 비율은 24%였다. 그러나 2010년 국세조사에서는 963만명, 16%까지 축소하고 있다. 15년 사이에 500만 명에 가까운 종사자수가 감소하였고 196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청부, 파견 노동자의 신분으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제조업에서 종사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업소 서비스업의 고용 성장은 제조업 고용의 축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2) 지역구성과 그 변화 - 분공장경제의 형성 및 논리의 파탄

위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일본공업은 너무나도 급격한 구조변화를 거쳐왔으나, 이러한 구조변화는 매우 명료한 지리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의 공업배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공업은 지리적으로 보면 협소한 국토 내에서 더욱 협소한 범위 내 공간적으로 편재되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공업배치를 규정짓는 것은 도쿄(케이힌), 오사카(한신), 나고야(츄쿄)의 삼대도시권의 공업지대와 그들을 잇는 북부 큐슈지방에 연장된 선을 축으로 하는 지대(태평양벨트)에 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정부에 따라 추진된 산업정책은 태평양연안 입지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소득배중계획에 따른 태평양벨트 구상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전방산업의 입지는 부근의 전방산업이 입지를 촉진시켜 기초소재산업의 틀 안에 제한되지 않는 누적적인 공업집적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파동 이후 소재형 산업을 대신한 가공조립형산업이 신장하여, 그 중에서도 노동집약적부문이 노동력공급면에서 혜택을 받게되고, 그 위에 비교적 임금수준이 낮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진출을 도모하였다. 특히, 전기, 전자기기공업 입지에는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기업내 지역간분업의 논리가 채택되었으나 1960년대부터 나가노현 및 동북지방, 큐슈지방 등에 노동집약적인 부분공정을 부담하는 분공장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공장은 농촌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국지적 생산체계를 형성하여 농촌 외 취업의 확대와 생산거점의 저임금노동력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왔다. 지역간분업의 양상은 당초 대도시권의 개발 및 최종제품 생산, 한쪽은 지방권의 부품 노동 집약적 생산이라는 심플한 형태를 띠었으나, 점차 지방공업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일관생산화를 도모하는 등 복잡한 기업내 지역간 분업으로 발전하였다. 때마침 고속도로망이 정비되어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대도시와 지방에서 공정을 분담하는 기업내 지역간 분업구조를 이뤘다. 대도시권의 집적과 지방권의 분산이라는 양륜으로 일본의 기술입국이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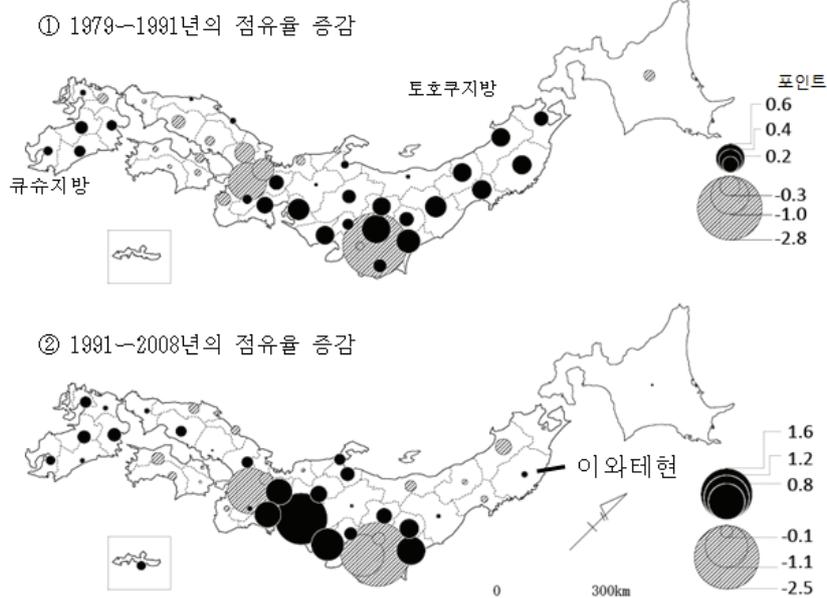
이러한 국내의 지역간 분업의 논리가 붕괴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제 2차 엔고 때, 생산의 해외

이관과 국경을 넘는 지역간 분업 구축이 진행되고 있던 중,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나가노현 등에서 놀라운 추세로 고용조정이 펼쳐졌다. 대규모 제조업체의 지방분공장은 소량생산품의 제조에 특화되어 있거나, 모공장(mother factory)으로 성장을 도모하며, 또한 비정규고용의 생산청부업의 사내외주 확대를 통해 작업을 유지한 공장도 많으나 그 외 협력공장에서는 폐업 및 업종전환에 빠지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전기, 전자기기공업에 닥친 고용조정의 물결은 2001년까지 계속되었으나 2003년 전후를 경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평판 TV의 개발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회귀는 대도시권회귀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사프의 카메라야마 공장, 사카이공장, 파나소닉의 아마가사키 공장의 건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경향을 상징하고 있다.

대도시권 회귀요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첫 번째, 버블붕괴 후 지가하락에 따른 대도시권입지의 비용부담이 감소했다는 것, 두 번째, 큰 소비시장 및 수출항만으로의 접근성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평판TV 생산을 놓고 보면, 패널류 생산은 가공조립산업이라기 보다는 거대장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만(灣) 등에서 감가된 부동산-산업유휴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요인이다. 세 번째로, 개발현장과 생산현장 사이의 공간적 거리를 줄이려는 새로운 기업전략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제품개발이라는 것은 생산현장에서 볼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까지 포함한 것으로, 항상 생산현장의 현상을 보지 않으면 생산비용까지도 의식한 제품개발을 행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제품사이클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기업내 지역간분업 체제에서는 높은 빈도에서 요원을 파견해야 하는 기업내 조정비용이 결코 무시할만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개발에는 다양한 관련기업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도시권이 외부경제상, 우수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네 번째, 대도시노동시장과의 연결성 때문이다. 예전과 같은 고용형태에서는 노동비용 상, 대도시권보다는 지방권이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비정규고용이 대의명분을 가지게 된 지금에는, 대도시권에서도 비교적 낮은 노동비용을 가지고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게다가 수요에 따른 임기응변에 고용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분야에서 대규모 생산을 개시하는 경우 이러한 성질을 가진 노동력의 대량확보가 가능한 대도시권이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별 종업원수의 전국대비 점유율 증감(%)



출처: 竹内·小田 編 (2014)

이러한 1980년대까지의 공업의 지방분산의 움직임과 1990년대 이후의 대도시권 주변에 수렴하는 움직임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먼저, 1991년까지의 비율 변화를 보면 케이힌(京浜), 케이한신(京阪神), 세토우치(瀬戸内)의 각 현, 후쿠오카(福岡)에서의 비율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태평양벨트 중 토카이(東海) 지방을 제외한 도부현(광역행정구역)의 비율감소와는 다르게 토호쿠, 기타칸토(北關東), 토카이, 큐슈의 광범위한 현에서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이후는 도호쿠지방의 각 현의 비율 확대가 억제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비율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타칸토 및 동해지방 등 대도시에 근접한 현에서 비율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토호쿠지방에서는 제 2차 엔고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의 해외이관을 계획하는 등 공장폐쇄 또는 규모축소를 시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지는 토호쿠의 공업이 아시아의 공업발전과 경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같이 주변부에 위치하면서도 큐슈 지방은 토호쿠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견실한 상태이며, 쿠마모토(熊本)·오이타(大分) 두 현을 중심으로 비율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 그림에 관한 2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번째로 2008년까지 살펴본 바로는 큐슈 남부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비율을 확대시켜 왔으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큐슈남부에서는 심각한 고용절감을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토호쿠지방의 제조업도 금융위기의 영향을 입은 것과 함께 2011년 이후에는 대지진의 영향을 받게 되어 분공장경제의 파탄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두번째로 토호쿠지방 각 현에서는 일제히 비율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와테현은 그나마 건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토요타관계의 자동차공업의 진출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으나 이와테현 및 기타카미시, 하나마키시와 같은 지자체의 장기간에 걸친 지역산업진흥의 시도가 공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3. 이와테 모델의 재고

이와테현(縣)은 비교적 일찍 분공장경제 파탄이라는 문제를 만났으나, 그러면서도 자율적 지역산업진흥을 추진해온 지역이다. 지역산업진흥의 방안으로 「이와테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와테 모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로서의 기반 가공업 유치 및 육성전략
- ② 창업가 풍토와 창업화 지원전략
- ③ 개인수준에서의 산학관 연계추진과 사회적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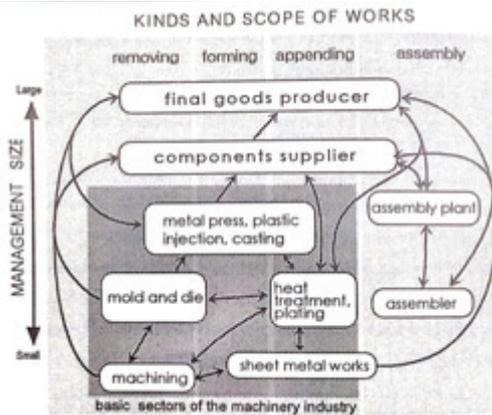
1) 기반적 기술전략

이와테현 내, 기타카미(北上)강 유역지역이 오늘날의 공업활동의 주요한 장(場)이다. 특히 공업핵심은 기타카미(北上)시이며, 시의 공업종업원수는 약 15,000 명 (2008 년)으로, 2차산업 취업비율은 40% 가깝다. 기타카미강 유역지역은 요즘에야 토호쿠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에서 당일치기권이지만, 고속도로와 신칸센이 개통 되기까지는 특급열차로 6~7시간, 자동차로는 약10시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공업화구상 자체는 매우 오래되어,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개발을 본보기로 한 북 「키타카미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최초의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유치에 들어갔지만, 도쿄에서 멀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가공산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 제조업들이 진출을 꺼려해, 1980년대에 들어서도 공단 미분양이 많았다. 이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키타카미 강 유역지역의 발전을 이끈 것은 한 행정직원의 ‘역발상’이었다.

그것은 ‘기본적 기술전략’(그림 4 참조)으로 표현되는데, “관련가공업 (Supporting Industry)가 없다면, 관련가공산업을 유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밀프레스 산업 및 도금 산업, 금형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도쿄·카나가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와테 출신의 공장주와 접촉하며 이와테 진출을 결심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적 가공산업의 집적이 진행되자, 이것이 대기업에게는 중요한 외부경제가 되어, 유명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분공장을 진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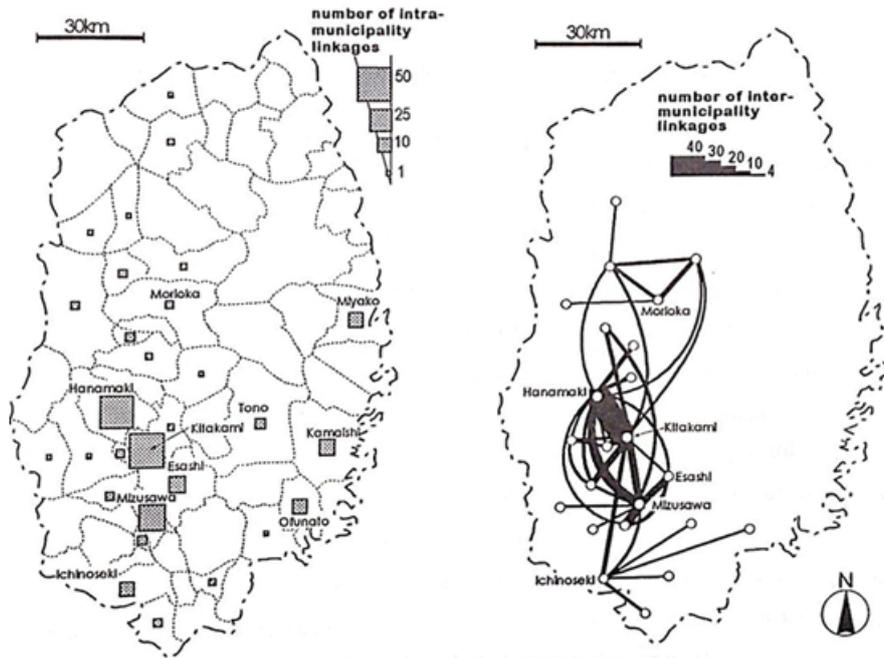
[그림 4] 기계공업의 기반적 가공부문



출처: 小田(2005)

이렇게 하여 1980년대 후반에, 키타카미 시·하나마키(花巻) 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와테현 키타카미 지역은, 동북지방 북부 굴지의 산업집적으로 발전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키타카미 지역을 중심으로 조밀한 연결구조를 확립했다 (그림 5).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공장경제였음은 의심할 바 없으나, 다른 신흥 분공장경제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인데 반해, 이와테 현에서는 같은 구조를 남기면서도 복수의 거래채널을 가진 전문적 가공업자가 “그물망 (Semillattice)”이라 표현해야 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림 6). 또한, [그림 7]에서 보여지듯이, 키타카미 지역 전문가공자는, 지방에 진출한 대기업을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토호쿠 지방 일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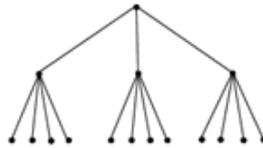
[그림 5] 이와테현 기계공업의 기업간 연결(1990년대 초반)



출처: 小田(2005)

[그림 6] 피라미드형 연결구조와 그물망형 연결구조

a) 피라미드형 연결구조



b) 그물망(Semilattice)형 연결구조



출처: 小田(2005)

또한, 1999년에 키타카미 시는 시내에 기반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측정기기·실험기기의 공동이용, 기술지도, 연계·교류 촉진, 인재육성 등에 착수했다. 이어 2003년에는 이와테대학 공학부에 금형기술연구센터가 설치되어 키타카미 시에는 그 분소(Satellite)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2006년에는 이와테 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에 금형·주조공학 전공이 발족했다. 금형기술을 전문으로 배우는 대학원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와테현에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첨단산업기술이라는 의미에서는 본디 후발주자이었던 이와테현은, 분 공장의 진출에 의존하면서도 기반적 가공기술의 육성에 노력하여 “토호쿠지역의 오타(大田: 도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집적지)”라고도 불리며, 단순히 미숙련 노동력에 의존하여 조립만 하는 노동집약적 모듈형(조합형)의 생산체계가 아닌, 발주측의 니즈(Needs)와 발주측 제안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인테그랄형(세밀조정 형식)의 생산체계를 실현했다.

2) 창업가 지원전략

그러나, 분공장경제라는 우려는 1990년대 중반이후, 이와테현에서도 예외없이 심각해졌다. 키타카미시는 큰 고용감소를 피했지만 인접한 하나마키, 현청소재지 모리오카(盛岡), 남쪽의 오슈(奥州)시·이치노세키 시 등에서는 제조업고용의 대폭 저하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줄기 희망을 왕성한 기업가정신에서 찾으려 했다.

[그림 8]은 도쿄 오타구에 본사가 있는 ‘알프스 전기’라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전성기의 분공장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많은 전자·전기기기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알프스전기도 중국 등에 생산이관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의 분공장을 축소·폐지를 추진했다.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2008년 이후의 세 시기에 구조조정을 단행, 그 많던 공장 내에서 현재도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7공장 정도이다. 게다가 현존하는 공장도 제품개발형 공장으로 전환하여 고용규모는 대폭으로 축소했다.

사실, 이 기업은 많은 독립창업자를 배출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도쿄 오타구 태생의 기업에는 도제제도적인 분위기로, 기능인육성을 해온 기업이 적지 않은데, 알프스 전기도 이러한 기업 풍토가 남아있는 회사였다. 진출지역에서 고용한 직원에게 기술을 몸에 익히게 하여, 스핀아웃을 장려했다. 특히 이와테현의 구(舊) 모리오카공장은 그런 경향이 강해, 모리오카 공장에서 스핀아웃한 기업만 40개 이상이다. 알프스 전기에서 감원을 할 때마다, 모리오카 공장 직원들이 독립했다고 한다.

알프스 전기 뿐 아니라, 토호쿠 지방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파나소닉이나 리코 같은 대기업에서 중국 등에 생산이관이 진행되어, 고용감소가 거듭되었다. 직원 들에게는 생산이관 시, 해외부임도 선택지에 있었지만, 농가의 장남들인 그들은 연로한 부모와 조상의 논밭을 두고 해외로 부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직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지역에서는, 대기업 제조업체에서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림 8] 알프스 전기의 분공장 분포



출처: 필자 작성

이 점에 착안한 것이 하나마키 시청의 직원이었다. 대기업의 분공장을 이직 한 사람들에게 스핀오프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4년에는 시(市)가 유희공장을 빌려 ‘하나마키시 창업화지원센터’운동을 시작하고 1996년부터 97년에 걸쳐 공동실험·측정 장비실, 연구실 대여·공장건물 대여 등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시설을 만들었다. 창업화지원센터가 시작해 10년 경과한 시점에서 23개사를 ‘졸업생 기업’이 이곳을 자립했고, 전국 200개의 인큐베이터 시설 중에서도 우수한 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현청소재지 모리오카 시에서는 2007년에 ‘모리오카 산학관 협력연구센터 (콜라보 MIU)’가 이와테 대학에 개설되어 이와테 대학의 연구자가 신규창업자의 기술지원을 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3)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전략

앞에서는 「이와테 모델」의 첫번째 측면 ‘기본적 기술전략’, 두 번째 측면 ‘기업가풍토와 창업화 지원’에 대해 보았다. 「이와테 모델」의 세 번째 측면은 ‘기술관계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특히 이와테 대학에 사무국을 가지는 ‘이와테 네트워크 시스템 (INS)’이 유명하고, 산학관 연계조직이자 이업종 교류조직으로서의 측면도 갖고 있다. INS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산학관연계조직이 기업단위로 가맹하는 반면, 여기에 가맹은 개인단위라는 점이다. 기업단위로 조직화를 추진하면 조직은 경직화·형식화 하여 신규기업 등에게 문턱 높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조직에 가맹할 때 기업에서 한명, 대학에서 한명으로 함으로써 대기업의 말단기술자도 벤처기업의 사장도, 대학교수도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INS 라고하는 것은 “맨날 술마시고 떠든다(いつも飲んで騒ぐ[Itsumo Nonde Sawagu])”라는 일본어 표현의 머리글자 조합이라고 한다. 술자리에서의 “무례함”이 마음 터놓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로는, 만약 정부의 경제산업성(한국의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가 시찰에 방문하더라도 “무례하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이 전제가 되어, 혁신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매우 양호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종래와 같은 기업계열에 얽매이지 않는 양질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되어, 기존기업의 신규분야 진출과 신규기업의 스타트업을 지탱해 주게 되었다. 이러한 이와테 방식의 연계모습은 이후 일본각지의 산학관연계, 이업종 교류의 유력한 모델이 되었다.

4. 이와테 모델의 적용한계

「이와테 모델」을 간결히 말하면, 분공장경제에서 유래하는 조건들을 활용하면서도, 분공장 경제에 일방적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주력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해 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와테 모델을 어느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일본의 내륙부 나가노(長野)현 등은 상대적으로 이와테현에 비교적 가까운 형태로 추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나가노 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도쿄의 피난공장에 의해 공업화가 진행되어, 또한 전후에도 많은 분공장을 맞아들여 진출기업들로부터 많은 중소기업이 스핀아웃하여 각종 기반적 가공기술을 키우고, 분 공장 경제 하에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협동에 기반한 내발적 산업진흥이, 현 레벨- 광역권 레벨- 기초지자체 레벨의 각 스케일에서 이루어져 왔다. 나가노 현 역시 대표적인 기업인 ‘세이코 엡손’과 ‘후지쯔’ 등이 중국으로 생산이관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풍부한 농업

생산에 힘입어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출 분공장의 성격과 지역풍토에 따라서는, 내발형 지역산업진흥으로 전환은 어렵고, 분공장 경제 파탄의 위험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진출기업이 고도로 장비산업화 하여 생산공정이 노동자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블랙 박스화 된 공장과 모듈형(조합형) 기술에 극도로 치우친 공장에서는,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자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비정규직에 크게 의존하는 현장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남(南)큐슈 지역처럼 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도 이직자가 돌아갈 수 있는 농가가 존재하고, 사회적 자본에 힘입어 재취업을 찾기 쉬운 지역에서는 구조조정 에 의한 지역경제 충격은 작다고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 말하면, 도쿄 인근 군마(群馬)현 등 키타칸토(北關東) 지방과 나고야(名古屋)에 가까운 미에(三重)현 등 토카이(東海) 지방의 공업은 첨단 연구 개발 노동자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한 비정규직의 유으로 지탱되는 부분이 매우 크고, 이러한 사회적 분열이 양호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막아, 대도시에서 가깝기에 얻을 수 있는 “다양성의 이익”을 상쇄하고, 분공장경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부터 20년전, 프랑스의 녹색 경제학자 알랭 리피에츠(Alain Lipietz)는 포디즘 종언 후의 21세기 산업공간이 ①네오 테일러주의(Neo-Taylorism)적인 길 (20세기적 상황을 기초로 하면서도 임금·고용의 불안정화), ②캘리포니아적인 길 (모래시계 모양의 노동시장 하에서 전문기업의 네트워크), ③새턴적인 길 (양극화를 거부하고 산학관 및 노동자의 협조를 중요시)의 세가지 시나리오의 혼성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마디로 「분공장 경제」라 해도, 이 3가지 배합정도에 따라 지역은 다른 모자이크를 그린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고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부기] 귀중한 심포지엄에서 강연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2014년 2월 28일 쿠마모토대학 문학부 종합인간학과에서 개최된 연구회 「공장폐쇄와 지역」에서 했던 논의가 참고가 되었습니다. 카시마 히로시(鹿嶋 洋)씨를 비롯한 쿠마모토 대학의 교수진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小田宏信 (2005) : 『現代日本の機械工業集積』 古今書院.

鹿嶋 洋 (2013) : 新興工業都市における工業労働力の流入と居住特性—三重県亀山市の事例—. 『福島大学商学論集』 第81巻第4号.

鹿嶋 洋 (2014) : 分工場経済地域における主力工場の閉鎖と労働者の流動—鹿児島県出水市の事例—. 『熊本大学文学部論叢』 第105号.

竹内淳彦・小田宏信編 (2014) : 『日本経済地理読本 (第9版)』 東洋経済新報社.

リピエッツ, A. 著, 井上泰夫・若森章孝編訳 (1993) : 『レギュレーション理論の新展開: エコロジーと資本主義の将来』 大村書店.

韓日共同シンポジウム「グローバル経済危機の時代、自律的な地域経済の可能性を問う」

分工場経済から自律的地域産業振興へ

—岩手モデルを再考する—

小田宏信（成蹊大学）

1. フォーディズムと企業内地域間分業、分工場経済

1880年代後半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離陸」を達成した日本の工業は、第一次世界大戦を経て、大戦間期に重工業化、装置化の基礎を形成し、第二次世界大戦後の高度経済成長期には基礎素材産業・加工組立産業の両面にわたる爆発的な設備投資を伴って著しい工業生産の伸びが認められた。1970年代には一時苦境に立たされるが、1980年代には、名実ともに「工業大国」「技術立国」という世界的地位を獲得することになった。

しかし、1991年を重大な転機にして、日本の製造業は新たな局面を迎えた。東アジア・東南アジア諸国への生産移管が顕著に進行し、それまで相対的にクローズドなシステムであった日本工業の分業システムは、一気に国際的に開かれたシステムへと転じた。その中で、本シンポジウムのキーワードである「分工場経済」の問題が表面化してきた。

まず、分工場経済というものは何だったかというのを確認することから本稿をはじめたい。

分工場経済というのは、大量生産大量消費の経済体制、すなわちフォーディズムの地理的な現れであった。1903年にフォード・モーター・カンパニーを創業したヘンリー・フォードは、1908年になると、流れ作業によって組立てることとなる最初の車種、T型モデルを発表した。T型フォードは、1927年に製造が打ち切られるまでの約20年にわたって1500万台が製造された、世界の産業史に名を残す量産自動車である。フォードは、従来からのアメリカの工業生産方式を特徴付ける互換性生産を基礎としたテーラー主義に流れ作業方式を付加した「フォード生産方式」を確立した。フォードによる生産性の向上は、製品価格の低廉化と、労働者に対しては賃金の上昇とを実現し、大量生産が需要を喚起する20世紀型の経済システムを作り上げた。

「製品価格が低下し、他方で賃金が上昇すれば、需要は拡大し、さらなる大量生産が可能となる」という黄金のサイクルは、それに適した工業立地やその他の地理的編成を伴っていた。ヘンリー・フォードは、製品仕様の規格標準化を徹底すれば、農村の未熟練労働力であっても部品製造に従事できると考え、ビレッジプラントと表現される部品工場をデトロイト郊外に分散させて行った。フォードは「賃金指向」と表現するが、工場にとっては相対的に低賃金で雇い入れることができ、そして、なにより農村の所得水準が豊かになると考えた。そして、農村が豊かになれば、製品市場がもたらされると考えた。

フォードが描いた地理的な生産方式は、理化学興業（リケン）や松下電器（パナソニック）をはじめ、多くの日本企業がとりいれていくことになった。図1は、企業内地域間分業を模式化したものであり、国土の中心部で、管理統括や最終製品を作り、周辺的な地域で部品製造を行うというのが、電気・電子工業はじめ加工組立型工業の多くの立地モデルとなっていった。こうした原理は、日本の場合には、田中角栄が自由民主党の中枢に位置した頃からは国土政策にも取り入れ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企業の立地行動を国家

が後押しして国民経済・地域経済を成長に導くという仕組みが、20世紀システムの経済運営・国土運営であ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意味で、一国内における分工場経済の破綻とは、20世紀型資本主義の終焉（最後のとどめ）を意味する。そのオルタナティブがいかなるべき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いまだ解決をみていない命題ではあるが、「分工場経済からの脱却の方策」を議論することは、こうした遠大なテーマにアプローチすることでもある。

2. 日本の製造業の趨勢と地域的構成の変化

(1) 日本の製造業の趨勢

主要業種の従業者数の推移(図2)をみることによって、この半世紀の日本工業の趨勢を把握しておく。戦前期より日本工業の主役であった繊維工業は、1960年代初頭には成長が頭打ちになるが、それに変わって、電気・電子機器、一般機器、輸送用機器といった加工組立系の業種が台頭し始める。高度経済成長の半ば、1965年不況の時期には一時的に伸びが鈍化するが、石油危機に見舞われた1973年まで、加工組立系の三業種に通じた雇用拡大が認められた。

第1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るのは1973年であり、この年を境に、繊維系の業種、金属系の業種で雇用減少が明示的なものになり、他方、一般機器、輸送用機器が横這い状況に転じるなかで、1970年代末期から1980年代を通じて、電気・電子機器工業の他を圧倒する雇用拡大が続いた。言うまでもなく、マイクロエレクトロニクスを背景にした新製品開発が背景にあった。

第2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は、1991年である。バブル崩壊とそれに続く第二次円高によって、それまで国内に向けられていた設備投資が海外に向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くに、衣服産業では委託生産を含む海外生産を拡大させ、電気・電子機器工業も旺盛な直接投資を伴って生産の海外移管を進めた。その結果として、これらの業種での労働集約的な職種において未曾有の雇用減がもたらされた。この時期、輸送用機器や一般機器でも、海外進出を進めるが、内需向けの生産が国内に維持されたこととや、中間財や資本財の生産において国内の技術集積に依存する必要があることから、長期趨勢的には雇用は横這い状況にある。

雇用という意味では、「日本工業の空洞化」が明らかに進行している。国勢調査ベースで製造業従業者数がピークを迎えるのは1990年の調査時であり、1464万人を数えた。日本の就業者総数に対するシェアは、24%であった。ところが、2010年国勢調査では963万人、16%にまで縮小している。15年の間に、500万人近くの従業者数を減じ、1960年代初頭の水準に後戻りしているのである。請負・派遣労働者として製造業の現場で働く人々が、製造業での就業に計上されないという見方はできるが、事業所サービス業における雇用の伸びは製造業雇用の縮小を相殺するほどのものではない。

(2) 地域的構成とその変化——分工場経済の形成と論理破綻

上記のように、1990年代以降、日本工業はあまりに急激な構造変化を遂げてきたわけであるが、このような構造変化は非常に明瞭な地理的な変化を伴っている。ここでは国内における工業配置上の変化について見ていくことにしたい。

日本の工業は、地域的にみると狭小な国土の中で、いっそう狭小な範囲の中に、偏った空間配置がなされている。その工業配置を特徴づけるのは、東京(京浜)、大阪(阪神)、名古屋(中京)の三大都市圏の工業地

帯とそれを結んで北部九州地方へと延長した線を軸とする地帯（太平洋ベルト）への著しい集積である。第二次世界大戦後、政府によって進められた産業政策は、太平洋沿岸への立地を誘導するものであり、このことは所得倍增計画における太平洋ベルト構想によって決定的なものとなる。こうした地域への川上部門の立地は、付近への川下部門の立地を促し、基礎素材産業の枠に留まらない累積的な工業集積を生み出した。

しかし、石油危機以降、素材型産業に変わって加工組立型産業が伸長し、その中でも労働集約的部門が、労働力供給の面で恵まれ、しかも、比較的賃金水準の低い遠隔県へと進出をはかった。とくに、電気・電子機器工業の立地には、比較的早い時期から、企業内地域間分業の論理が採り入れられ、1960年代から長野県や東北地方、九州地方などに、労働集約的な部分工程を担う分工場が展開した。このような分工場は、農村集落のすみずみにまで入り込んだ局地的生産体系を形成し、農村における農外就業の拡大と生産サイドにおける低賃金労働力確保という一石二鳥の役割を果たした。地域間分業の様態は、当初、大都市圏における開発および最終製品の生産、かたや地方圏における部品の労働集約的生産というシンプルな形態をとったが、次第に、地方工場が製品開発を行ったり、一貫生産化をはかるといったような複雑な企業内地域間分業へと発展した。折からの高速道路網の整備は、大都市へのアクセシビリティを向上させ、大都市と地方で工程を分担する企業内地域間分業の構造を成り立たせた。大都市圏での集積と地方圏への分散という両輪でもって、日本の技術立国は成り立ったのであった。

こうした国内における地域間分業の論理が崩壊するのは、1990年代の半ばであり、第二次円高のなか、生産の海外移管と国境を越えた地域間分業の構築が進むなかで、宮城県、福島県、長野県などで、凄まじい勢いで雇用調整が繰り返されられた。大手メーカーの地方分工場は、少量生産品の製造に特化したり、マザー工場化をはかる、また、非正規雇用や生産請負業への「社内外注」の拡大によって、操業を維持した工場も多いが、その協力工場では廃業や業種転換に追い込まれた企業も少なくない。

電気・電子機器工業を襲った雇用調整の波は2001年頃まで続いたが、2003年前後を境目にして、新たな局面を迎える。薄型テレビの開発に伴って、国内における設備投資が活性化するに至った。前述したように、「国内回帰」は「大都市圏回帰」の様相を呈しており、シャープの亀山工場、堺工場、パナソニックの尼崎工場の建設は言うまでもなくこうした傾向を象徴している。

大都市圏回帰の要因は種々考えられるが、第1にはバブル崩壊後の地価下落によって大都市圏立地のコスト負担が減じられたこと、第2には大消費市場や輸出港湾へのアクセスが再評価されるに至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ことに薄型テレビの生産にみる限り、パネル類の生産は加工組立産業というよりも巨大装置産業である。大阪湾などで減価した不動産たる産業遊休地が得られたということが大きな動因である。第3には、開発現場と生産現場との間の空間的距離を圧縮しようとする新たな企業戦略が働いたためである。製品開発とは生産現場におけるプロセス構築まで含んでいるのであり、常に生産現場の現状をみなければ、生産コストまでも意識した製品開発は行えない。こうした中で、製品サイクルのいっそうの短縮が必要とあれば、従来のような企業内地域間分業の体制では、高い頻度での要員派遣といった企業内における調整費用が決して無視できないものになってくる。しかも、開発にはさまざま関連企業の支援が必要であるので大都市圏が外部経済上、すぐれているのは確かである。第4には、大都市労働市場との結び付きである。かつてのような雇用形態では、労働コスト上、大都市圏よりは地方圏の方がすぐれていた。しかし、非正規雇用が大義名分を有するようになった今日では、大都市圏においてでも比較的低い労働コストでもって雇用が可能で、しかも、需要に応じて臨機応変に雇用を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新規分野での大規模生産の開始とあれば、このような性質を持つ労働力の大量確保の可能な大都市圏が望ましいものとなってきたのである。

こうした1980年代までの工業の地方分散の動き、1990年代以降の大都市圏周辺への収斂の動きは統計上

からも裏付けることができる(図3)。

まず、1991年までのシェアの変化に目を向けると、京浜、京阪神、瀬戸内の諸県、福岡でのシェア低下が看取できる。太平洋ベルトのうち東海地方を除く都府県のシェア低下の一方で、東北・北関東・東海・九州の広範な県においてシェア拡大を示していた。しかし、1991年以降は、東北地方の各県がシェア拡大の抑制、もしくは、シェア低下に直面する一方で、北関東や東海地方など大都市に近接した諸県でシェアの大幅な拡大を経験した。主に東北地方において、第二次円高を契機に、多くの企業が生産の海外移管を計ったり、工場閉鎖ないし規模縮小を行ったためである。労働集約型の特徴を有する東北工業がアジアにおける工業発展と競合した結果である。これに対して、同じく周辺部に位置しながらも九州地方は東北地方に比べれば比較的堅調であり、熊本・大分の両県を中心にシェア拡大が続いていった。

本図に関して2点説明を付け加えておきたい。第1に、2008年までで見る限り、九州南部は、半導体や薄型ディスプレイ産業の好調に支えられて、シェアを拡大させていたのであるが、世界金融危機以降には、九州南部では深刻な雇用削減に見舞われるようになった。一方で、東北地方の製造業も金融危機の影響を被るとともに、2011年以降は、大震災の影響を受けていることもあり、分工場経済の破綻は全国的な現象になっている。

第2に、東北地方の各県では軒並みシェアを減じるなかであって、岩手県は、なんとか健闘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指摘できる。これは、トヨタ関係の自動車工場の進出に帰せられる部分もあるが、岩手県や北上市、花巻市といった自治体の長年にわたる地域産業振興の取り組みが功を奏したのだと報告者は考えている。

3. 「岩手モデル」を再考する

岩手県は比較的早い時期から分工場経済の破綻という問題に見舞われ、それでありながら、自律的な地域産業振興を進めてきた県である。地域産業振興の方策に「岩手モデル」というものがあつたとすれば、いかなるものであつたのか整理してみる必要がある。

前もって、「岩手モデル」を簡単に整理すれば、

- (1) サポートインダストリーとしての基盤的加工業の誘致・育成戦略
- (2) 起業家風土と起業化支援戦略
- (3) 「個人レベル」での産学官連携の推進と社会的ネットワーク

となろう。

(1) 基盤的技術戦略

岩手県の中でも北上川の流域地域が今日の工業活動の主要な場である。とくに、その工業核心は北上市であり、同市の工業従業者数は約15000人(2008年)で、第二次産業就業比率は4割近い。北上川流域地域は、今日でこそ、東北新幹線を用いれば東京からの日帰り圏内であるが、高速道路や新幹線の開通までは、特急列車で6～7時間、自動車では約10時間の時間距離が必要であった。工業化の構想自体は非常に古く、合衆国のテネシー川流域開発を手本した北上特定地域総合開発計画が1950年代に始まって以来である。1960年代半ばには最初の工業団地が造成され、1970年代から工場誘致は本格化したが、東京から遠距離に位置するということと、製造活動に必要なさまざまな関連加工業が存在しないことから、大手製造業には進出を敬遠されて、1980年代になっても工業団地の売れ残りが目立っていた。そのような立地条件にも関わらず、その後の北上川流域地域の発展を導いたのは、一人の行政マンの「逆転の発想」であった。

その発想は、「基盤的技術戦略」（図4）と表現されているが、「関連加工業（サポーティングインダストリー）が無いのなら、関連加工業を誘致すればよい」と考え、精密プレス業やメッキ業、金型製造業などの分野で、東京・神奈川で工場を営む岩手県出身の工場主に声をかけて岩手県進出を決意させた。そして、このような基盤的加工業の集積が進行すると、それが大手企業にとっての重要な外部経済となって、蒼々たる大手企業の分工場群の進出を促すことになった。

1980年代の後半には、北上市・花巻市を中心とする岩手県北上地域は、東北地方北部屈指の工業集積へと発展していた。報告者の分析によると1990年代の初頭には、北上地域を中心として、密なリンケージ構造が確立していた（図5）。大企業を中心とする分工場経済であったことは疑い無いのであるが、ほかの新興の分工業経済が大手企業の分工場を頂点とするピラミッド構造であったのに対し、岩手県ではそのような構造を残しながらも、複数の取引チャンネルを持つ専門的な加工業者が「セミラティス型」とも言うべきネットワークを築いていた（図6）。また、図7に示されるように、北上地区の専門加工業者は、地元に進出した大企業の需要にこたえるだけでなく、東北地方一円の需要にこたえるようになっていた。

また、その後、1999年には、北上市は市内に基盤技術支援センターを設置し、測定機器・実験機器の共同利用、技術指導、連携・交流促進、人材育成などに着手した。続いて、2003年には、岩手大学工学部に金型技術研究センターが設置され、北上市にはそのサテライトがおかれた。また、この研究センターをベースに、2006年には、岩手大学大学院工学研究科に、金型・鋳造工学専攻が発足した。金型技術を専門に学ぶ大学院が、日本で唯一、岩手県におかれたのである。

上記のように、先端的工業技術という意味では、もともと、後進的であった岩手県は、分工場の進出に依存しながらも、懸命な努力で、基盤的加工技術の育成につとめ、「東北地方の大田区」とも呼ばれるように、単に未熟練労働力に依存して組立のみの労働集約的業務を

行うモジュラー型（組み合わせ型）の生産体系ではなく、発注側のニーズと受注側の提案を擦り合わせていくインテグラル型（擦り合わせ型）の生産体系を実現した。

（2）起業家支援戦略

しかし、分工場経済という懸念は1990年代半ば以降、岩手県においても例外なく深刻化していく。北上市でこそ、大きな雇用減を免れたが、それに隣接する花巻市、県都の盛岡市、県南の奥州市・一関市などでは製造業雇用の大幅な低下が看取された。そのような中にある一つの希望は、旺盛な起業家精神に求められた。

図8は、東京大田区に本社を有するアルプス電気という電子部品メーカーの全盛期における分工場配置を示したものである。多くの電子・電気機器メーカーと同様、アルプス電気も中国などへの生産移管を進める一方で国内の分工場の縮小・廃止を進めてきた。1990年代の半ば、2000年代初頭、2008年以降の三時期に、リストラクチャリングを進め、これだけあった工場のなかで現在も操業を続けるのは、7工場ほどになっている。しかも、現存する工場も、製品開発型の工場へと転換して、雇用規模は大幅に縮小している。

実は、このアルプス電気という企業は、多くの独立創業者を輩出した企業として知られている。一般に、東京大田区を出自とする企業にはは、徒弟制的な雰囲気、技能者育成を行ってきた企業は少なくないが、アルプス電気もそのような企業風土を残す会社であった。進出先で雇用した従業員にスキルを身につけさせて、スピナウト（独立創業）を奨励していた。とくに、岩手県の旧盛岡工場はそのような傾向が強く、盛岡工場からのスピナウト企業だけで40社以上を数えている。アルプス電気でも雇用削減を行うたびに、盛岡工場従業員の独立がみられたとも言われている。

アルプス電気のみならず、東北地方では1990年代半ばから、パナソニックやリコーといった大手企業で、中国等への生産移管が進められ、度重なる雇用削減が進められてきた。従業者にとっては、生産移管に際し、海外への赴任も選択肢のうちにはありましたが、農家の長男の人たちにとっては、年老いた両親と先祖代々の田畑を置いて海外赴任するわけにもいかなかった。彼らは、結果的に、離職の道を選ばざるを得なかった。一方では、地域にとっては、大手メーカーで技能を身につけた人々は、重要な人的資源とみな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

この点に着目したのが、花巻市役所の行政マンであった。大手企業の分工場を離職した人たちが、独立創業しやすい条件を提供しようと考えたのである。かくして、1994年には、市が遊休工場を借り上げて「花巻市起業化支援センター」の運営を開始し、1996年から97年にかけて、共同実験・測定機器室、貸研究室・貸工場棟などからなる本格的な施設を作り上げた。起業化支援センターがスタートして10年経過した時点で、23社を「卒業生企業」が同センターを巣立っており、全国200あるインキュベータ施設のなかでも、優秀な実績であると判断できる。一方、県都の盛岡市では、2007年に同市による「盛岡市産学官連携研究センター（コラボMIU）」が岩手大学内に開設され、岩手大学の研究者が新規創業者の技術支援を行う体制が構築された。

(3) 社会的ネットワークの形成戦略

上記では「岩手モデル」の第1の側面「基盤的技術戦略」、第2の側面「起業家風土と起業化支援」についてみてきたが、「岩手モデル」の第3の側面は、技術関係者における社会的ネットワークの構築である。とくに、岩手大学に事務局をもつ「岩手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INS）」が有名で、産学官連携組織であると同時に異業種交流組織としての側面も有している。INSの特徴の一つは、通常の産学官連携組織が企業単位で加盟するのに対して、ここへの加盟は個人単位であるということに求められる。企業単位で組織化を進めたのでは、組織は硬直化・形式化して、新規企業などには敷居の高い存在となってしまう。ところが、組織への加盟を企業の中の一個人、大学の中の一個人とすることで、大企業の末端の技術者も、ベンチャービジネスの社長も、大学教授も、対等な関係で活動に加わ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彼らが表現するには、INSというのは「いつも、（酒を）飲んで、騒いでいる」という日本語の頭文字を組み合わせたものでもあるという。酒席での「無礼講（長幼の節をわきまえないこと）」が、非常にうちと解けた雰囲気醸し出すのである。そして、彼らが言うには、仮に政府の経済産業省の高級官僚が視察に訪れたとしても無礼講だというのである。こうした制度的条件が前提となって、イノベティブな可能性を作り出す非常に良好な社会的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てきたのである。そして、こうした社会的ネットワークは、従来のような企業系列に制約されない良質な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となって、既存企業の新規分野への参入や、新規企業のスタートアップを支えていくことになった。このような岩手方式の連携の在り方は、その後の日本各地の、産学官連携、異業種交流の有力なモデルとなった。

4. 「岩手モデル」の適用の限界

「岩手モデル」を簡潔に振り返ってみたが、分工場経済に由来する諸条件を活用しながらも、分工場経済に一方的な影響を受けるだけでなく、能動的に地域産業振興に力を注いで、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してきたというのが岩手モデルの姿であった。

では、岩手モデルを、どこの地域にも適用できるのだろうか。

おそらくは、日本の内陸部の長野県などは、比較的、岩手県に比較的近い形態で推移してきたと言えるであろう。長野県では、第二次世界大戦中から、東京からの疎開工場によって工業化が進み、また戦後も多くの分工場を迎え、進出企業から多くの中小企業がスピニアウトして、各種の基盤的加工技術を育み、分工場経済下でありながらも中小企業の協働に基づく内発的な産業振興が、県レベル、広域圏レベル、市町村レベルの各スケールで行われてきた。長野県もまた、代表的な企業であるセイコーエプソンや富士通などの中国への生産移管によって大きな打撃を受け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が、豊かな農業生産にも支えられて、強靱な体力を維持している。

しかし、進出分工場の性格や地域風土によっては、内発型の地域産業振興に転換するには困難であり、分工場経済の破綻のリスクは非常に大きい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くに、進出企業が、高度に設備産業されて生産工程が労働者の目からすれば完全にブラックボックス化されている工場や、モジュラー型（組み合わせ型）の技術に極度の偏った工場では、新規起業を支える技能者形成がなされにくい。また、非正規雇用に大きく依存する現場でも同様のことが言えるかも知れない。また、南九州地方のように離職者が大量に発生しても、離職者が帰っていく農家が存在したり、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に支えられて再就職先を見つけ出しやすい地域では、リストラクチャリングによる地域経済へのショックは小さいと考えられる。こうした意味では、日本の中で言えば、東京に近い群馬県など北関東地方や名古屋に近い三重県など東海地方の工業は、高度な研究開発労働者の一方で、外国からの労働者も含む非正規雇用の流入に支えられている部分が非常に大きく、このような社会的分断化が良好な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の形成を阻んで、大都市に近いことから得られる「多様性の利益」をも相殺して、分工場経済の問題をよりいっそう深刻なものにしている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今から20年以上前に、フランスの「緑の経済学者」アラン・リピエッツは、フォーディズム終焉後の21世紀の産業空間が、ネオ・テラー主義的道（20世紀的状况を基礎にしながらも賃金・雇用の不安定化）、カリフォルニア的道（砂時計状の労働市場の下での専門企業のネットワーク）、サターンの道（二極化を拒絶し、産学官および労働者の協調を重んずる）という3つのシナリオの混成物になるであろうと予期した。一言で「分工場経済」と言えども、上記3つの配合の度合いは地域によって違ったモザイクを描いているというのが、現在の日本の状況であると、報告者は理解している。

付記] 貴重なシンポジウムでの報告の機会を与えて頂きましたこと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本稿の作成に際しては、2014年2月28日に熊本大学文学部総合人間学科で開催された研究会「工場閉鎖と地域」での議論が参考になりました。鹿嶋 洋氏を始めとする熊本大学の教授陣にお礼申し上げます。

主要参考文献

小田宏信（2004）：『現代日本の機械工業集積』古今書院。

鹿嶋 洋（2013）：新興工業都市における工業労働力の流入と居住特性—三重県亀山市の事例—。『福島大学商学論集』第81巻第4号。

鹿嶋 洋（2014）：分工場経済地域における主力工場の閉鎖と労働者の流動—鹿児島県出水市の事例—。『熊本大学文学部論叢』第105号。

竹内淳彦・小田宏信編（2014）：『日本経済地理読本（第9版）』東洋経済新報社。

リピエッツ, A. 著, 井上泰夫・若森章孝編訳（1993）：『レギュレーション理論の新展開：エコロジーと資本主義の将来』大村書店。